

# 창작 찬불가 날개달기

### ■ 5회 맞이한 창작 찬불가 공모 어제와 오늘

## 조계종, 운영방법 개선 통한 업그레이드 시도



2000곡이 넘는 찬불가 가운데 널리 불리는 곡은 30~50여곡에 불과하다. 사찰합창단을 활용한 창작 찬불가 보급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

불교음악인 발공과 찬불가 보급을 목적으로 시작된 '창작 찬불가 공모'가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조계종 총무원 주최로 1997년부터 격년제로 진행돼온 공모는 실질적인 성과가 미미한 탓에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수차례 받아왔다. 그러나 주최측은 올해 제5회 공모를 준비하면서 도약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가장 큰 시도는 공모작의 질적 수준을 고양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그간 공모에 작품을 제출한 이들 가운데 작곡 전공자는 20~30%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응모자들은 대중가요 스타일 작품들로, 불교음악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대학생들이 다수였다.

여러 차례 심사에 참여했던 안병길(삼보불교음악협회 사무총장)씨는 "불교적인 정서를 표현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아마추어적인 미숙함을 그대로 노출한 작품이 적지 않아 수상작을 뽑기 어려울 때가 많았다"고 고백했다. 이에 주최측은 전문음악단체와 손을 잡고 우수 음악가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교계 안팎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벌이고 나섰다. 공모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황현씨는 "현재 음악대학과 음악단체 등과의 접촉을 통해 작품 응모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30여 편에 불과했던 공모작의 수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그 가운데 작곡 전공생의 비율 역시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고상인 대상의 상금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동아음악콩쿠르 등의 널리 알려진 음악 공모와 비교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 수준이다. 조계종 문화부측은 "공모전의 권위는 상금과 무관하지 않다"며 "질적으로 우수한 찬불가를 생산하고 보급

기 위해 다음 공모부터는 기악곡·가곡·가요 등으로 공모 장르를 세분화할 계획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공모 이후의 관리·감독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공모가 네 차례 진행되는 동안 수상작과 수상자에 대한 사후 지원이 전무했다. 반영규(불교음악협회 명예 회장)씨는 "정작 곡을 생산하고도 보급의 길이 막혀 그대로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중

## 20~30% 불과한 작곡 전공자 적극 홍보로 80% 까지 상금 상향 조정 · 심사위원 외부 비율 확대 등 질적 투자 작품 및 수상자들 사후 관리 위해 종단 차원 모색 검토

단과 불교계 방송매체 등이 중지를 모아 찬불가 보급을 정책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번부터 '불교합창 콩쿠르'를 통해 수상작을 소개하며 대중화를 꾀한 것은 새로운 시도다. 그러나 보다 장기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수상자 관리도 주최측의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찬불가 공모가 불교음악 신예들을 발굴할 수 있는 통로구실을 하는 만큼 수상 이후 사찰 합창단과의 연계나 관련 단체 취업 알선 등을 추진, 수상자들이 계속해서 양질의 찬불가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강신재 기자

### 창작찬불가 공모는...

- 공모부문-독창곡 혹은 합창곡
- 응모자격-대한민국 남녀 20세 이상
- 접수기간-8월 1일~ 8월 8일
- 심사발표-10월 10일
- 시상식 및 수상곡 연주-12월 6일 오후 2시 리틀엔젤스 예술회관
- 시상내역
  - 대상 1인(상금 500만원, 상패)
  - 우수상 1인(상금 300만원, 상패)
  - 장려상 2인(상금 50만원, 상패)
  - 입선 5인(상금 20만원, 상패)
  - 아름다운 노랫말상(상금 100만원, 상패)
- 제출서류
  - 악보 2부, 응모신청서 1부,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부

※ 문의 | (02)2011-1770, (02)725-7527

## 전통에 대중성 살린 '보현십원가'



음악을 공양하는 사람들. 왼쪽부터 수나문, 오세리, 오세리.

### 블루스 레게 랩 등 다양한 스타일 접목

신라의 향가 '보현십원가'에 현대적 음악 스타일의 곡을 붙인 앨범이 나왔다.

'음악을 공양하는 사람들'은 굳어 스님의 '보현십원가'를 대중음악 형식으로 새롭게 엮은 앨범을 대중에게 선보였다. '보현십원가'는 <화엄경>의 보현행원품 내용을 담은 몇 안 되는 현존 10구체 향가.

앨범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된다. 첫째로 '보현십원가'의 본디 의미를 '지금-여기'에서 성공적으로 되살린 점이다. 향가는 문헌상에 텍스트로 남아 전해지지만, 신라 당시에는 '노래'로 불렸다.

굳어 스님은 보다 많은 이들이 보다 쉽게 불법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현십원가를 만든 것이다.

음악을 공양하는 사람들은 원문의 의미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오늘날의 언어적인 미감을 녹여 개역 작업을 했다.

유명 뮤지션이 대거 참여한 폭넓은 음악적 시도 역시 기대를 모은다. 11수의 향가는 블루스, 레게, 컨트리, 랩 등의 다양한 음악적 스타일로 표현됐다.

유명 기타리스트 오세리·오세리·수나문 등의 기본 멤버 이외에 클래식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준(서울시립대 교수), 힙합그룹 드렁큰 타이거의 랩퍼 타이거 JK, 기타리스트 김광석 등의 뮤지션들이 작업에 동참했다. 또한 유명 사진작가 김중만씨가 앨범 자켓 사진을 맡았다.

www.spxbuddha.com, (031)585-3285  
강신재 기자

## 436년 만에 공개되는 '월인석보판목'

### 공주 감사(5월 1~20일, 보장각)



월인석보판목(보물 제582호)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로 된 불교대장경인 '월인석보판목' (보물 제582호)이 만들어진지 436년 만에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충남 공주 계룡산 감사(주지) 장곡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5월 1일부터 20일까지 보장각에서 월인석보판목 특별전시회를 갖는다.

<월인석보>는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을 합해 세조 5년(1459)에 편찬한 불교대장경으로,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담고 있다. 1569년 만들어진 월인석보판목은 <월인석보>를 새겨 책으로 찍어내던 판각이며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유일한 판목이다. 원래 57매 233장으로 모두 24권이었으나 현재는 21권 46매만 남아있다.

이 판목은 훈민정음 창제 이후 15세기 글자와 말을 그대로 담고 있어 국어학적으로도 중요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한영우 기자

## 4·8 봉축카드·생일카드

비단점등 상공인특허 제50831호  
값 2,700원(100개 이상 주문시)

### 4·8 봉축카드



### 생일카드



### 카드내지

16절

- 카드 100매 이상 단가 500원
- 카드 500매 이상 단가 400원
- 카드 1,000매 이상 단가 300원
- 봉투, 내지 인쇄포함

### 프린트용 칼라인쇄지

A4 (80P모조)

값 10,000원(500매)

## 동진기획

Since 1975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 (051)515-8888(대), 515-2988  
(051)555-1087, 508-9377~9  
FAX: (051)508-0101 H-P: 011-554-2988

■ 불교서적 ■ 불교카렌다 ■ 주문카렌다 ■ 불교용품  
■ 연등 ■ 4·8카드 ■ 생일카드 ■ 사찰인쇄전문

E-mail: tunhwang@yahoo.co.kr  
www.tunhwang.com www.dongjin.biz www.동진기획.com  
\*대량구입시 가격은 인터넷 또는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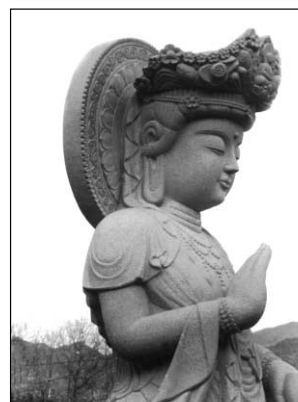
##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기슭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5349 / 휴대폰: 010-7474-5349